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2026년 8월 6일(목) 제 3377호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 전북도, 폭염 장기화 현장대응 총력

### 폭염·가뭄 대응 전 시군 점검회의

**도지사 주재 14개 시군 긴급점검**
**취약층 보호·온열질환 예방 총력**
**농축산 피해·용수관리 대책 논의**

전북도는 5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과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강수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업·축산분야 피해 예방 ▲가뭄 대응 및 용수 관리 ▲시·군별 대응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홀몸노인과 기저질환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보호체계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또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환기·급수 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폭염과 가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시·군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현장 대응 강화

**경제부지사 익산 농가 현장점검**
**道, 폭염 예방사업 193억원 투입**

전북도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이날 익산시 춘포면 토종닭 농가인 참샘농장과 한우농장인 워낭한우농장을 찾아 안개분무시설과 환풍기 등 폭염 대응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에 따르면 4일 기준 도내 폭염 피해는 닭 10만4,899수, 오리 1만4,331수, 돼지 2,867두 등 총 12만2,097두수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총 19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폭염 취약농가 505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28개 농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홍보와 축산농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김민석, 당심 과반 지지 확보 정청래 20%p 앞서

**KSOI 조사 51.1% 지지율 기록**
**호남서도 42.6% 대 22.0% 우세**
**일반여론도 0.5%p 앞서 선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20%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

5일 KSOI에 따르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중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는 김 후보가 51.1%로 과반을 넘겼으며 정 후보는 31.4%를 기록해 19.7%포인트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5.5%였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만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 이상이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가 28.1%로 정청래 후보 27.6%에 비해 0.5%포인트 앞섰다. 송 후보는 4.8%였다. '없음'은 28.8%, '잘 모름'은 10.7%로 조사됐다.

또한 민주 지지층이 절대 다수인 호남에서의 당대표 후보 지지도는 김 후보가 42.6%로 정 후보(22.0%)보다 20.6%p 높았다.

하지만 서울에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해온 정 후보는 서울에서 27.5%로 김 후보(25.0%)를 크게 앞섰고, 경기·인천에서도 정 후보가 32.0%로 김 후보(23.0%)를 9.0%포인트 차이로 선두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며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묵기자

**대농갱이 치어 방류** 전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7일까지 군산 만경강과 옥구저수지, 김제 능제, 고창천 등 3개 시·군 수계에 어린 대농갱이 치어 3만 마리를 방류한다. 도는 올해부터 3년간 토종어종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도, 농식품기업 기술혁신 지원 '속도'

**혁신성장위 기획단 2차 회의**
**애로기술 발굴·현장 컨설팅 확대**
**AI·푸드테크 등 국책과제 발굴**

전북도는 5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혁신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농식품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라승용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혁신기획단 위원과 자문위원, 분과 간사 등 26명이 참석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현황과 농식품기업 애로기술 수요조사 추진현황, 분과별 기획과제, 민선9기 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도내 농식품기업 714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 7월 말 기준 40개 기업의 애로기술을 발굴하고 전문경력 활동가를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공정 개선, AI 기반 기술 도입, 기술사업화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확대 운영중이다.

특히 기업별 애로사항을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 실증연구, 공동연구과제, 글로컬 사업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현장 문제 해결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종자, 반려동물 등 5개 분과에서 발굴 중인 기획과제 추진현황도 공유됐다.

AI·동물대체시험 기반 바이오소재 실증, 맞춤형 농식품 데이터 활용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 기획 방향을 점검하고, 분과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선9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운영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혁신기획단 기능을 강화해 현장 애로 발굴부터 기술매칭, 사업기획, 국가예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협력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농생명 혁신기관 간 연계와 분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5일 2차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혁신기획단 회의를 열고 농식품기업 기술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개최된 1차 회의. <사진=전북도>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6일 목요일

# 道 국가예산 확보 막판 총력…서울 상주반 가동

**도·시군 합동 서울 상주 대응**
**고정삼 부지사 심의 현장 지휘**
**40대 핵심사업 정부안 반영 총력**
**기재부 심의동향 실시간 대응**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서울에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가동해 기획예산처 심의 막바지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지난 3일부터 당정협의와 대통령실 보고 등을 위해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3~4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별 핵심 쟁점 보고와 잔여 쟁점 정리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정부예산안의 뼈대가 완성되는 단계다.

특히 8월 중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인사가 제기한 사업 심의가 집중된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도는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편성한 상주반도 16일까지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상주반을 지휘한다.

고 부지사는 상주 기간 동안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까지 접촉해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쟁점이 제기된 사업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추진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해 협상 여지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지난달 29일 건의 활동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고 부지사는 취임 후 첫 국회 방문에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도 핵심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원택 도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

도는 100대 중점사업 가운데 국회 단계 대응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완성도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40대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해 대응 논리를 보완한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국회 단계 설득력을 높일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송영길 "중도사퇴 없다…경선 완주" 일축

**"사퇴 땐 지지표 모두 무효…**
**완주해야 선호투표 취지 맞아"**
**강성 요구 '조희대 탄핵' 수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일부 진영의 후보 사퇴 요구'와 관련, "제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대표 당락에 관계없이 경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 경선 중간집계 3위로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상황과 일부 친명(김민석지지)계의 사퇴 요구'와 관련, "선호투표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나오는 오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중도에 사퇴하면 지금까지 저에게 투표한 표가 모두 무효표가 된다"며 "반대로 끝까지 완주해 제가 3위를 하면 저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들의 표가 2순위 후보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송 후보와 우호적인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1순위로 투표한 당원 중 절대 다수가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 결과적으로 현행 선호투표제 하에서는 3순위인 자신이 사퇴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송영길 후보

실제 송 후보는 "선호투표제에서는 사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원들이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인천은 투표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며 "인천은 저의 정치적 고향인 만큼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후보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도, 청소년 정책 소통·협력 강화 머리 맞대

**청소년단체협의회와 정책 간담회**
**국제교류·동아리 지원 확대 논의**
**민선 9기 청소년정책 방향 공유**

전북도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청소년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14개 시·군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권혁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에 맞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지원, 문화교류·체험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함께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재능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도 청소년어울림마당 △도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전북-서울 청소년 문화교류 등 청소년 사업 지원 확대를 비롯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도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 민선 9기 도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윤준병, 기초지자체 산림계획 의무화 추진

**지역맞춤 산림거버넌스법 발의**
**시·군 산림정책 자율성 강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초지자체 관할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산림계획을 수립가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산림정책 수립 및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해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체계 마련 및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산림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 시·도, 시·군·구 등 각급별로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정비 의무화, △5년 단위의 산림 공익기능 평가 실시,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확정된 산림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산림은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극복,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도내 유통 모기기피제·자외선차단제 모두 '적합'

**최근 5년 유통 321건 품질 검사**
**기능성 성분·배합기준 모두 충족**

전북도는 최근 5년간 도내에 유통 중인 여름철 다소비 품목인 모기기피제와 자외선차단제 32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의약외품) 136건과 자외선차단제(기능성화장품) 18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능성 성분의 함량과 법정 배합 한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검사 결과 모기기피제의 기능성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과 자외선차단제의 기능성 성분인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 등 주요 기능성 성분이 모두 표시 기준과 고시된 최대 배합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앞으로도 계절별 다소비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 모니터링 결과 여름철 다소비 품목인 모기기피제와 자외선차단제가 모두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주시 재정 위기 정면 돌파

## 비상 재정혁신특위 출범

전주시가 재정 위기 돌파 위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5일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출범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재정운용 전반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혁신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어 제2~3차 등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은 2조504억원에서 2조4451억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액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이었다. 또, 올해 의무지출은 1조1746억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6년 말 6841억원,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에 필요한 시비도 1조7604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이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 '전주사랑콜' 홍보 박차

## 지역 경제 살리는 착한 호출 앱

전주시가 지역 콜택시 플랫폼인 '전주사랑콜' 활성화 위한 대대적인 현장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6 전주가맥축제' 현장에서 전주사랑콜 대규모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축제장 내 전용 홍보부스를 설치해 음주 방문객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현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택시 할인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에는 전주역 광장에서 KTX 이용객과 여름철 피서객,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사랑콜 신규 가입 유치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무더위를 식혀줄 얼음물과 QR코드가 탑재된 홍보 부채를 배부하며 앱 설치 및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또 앱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세대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에서 1:1로 어플 설치와 본인 인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전주역 홍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가오는 가맥축제장에서도 많은 분이 전주사랑콜에 가입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홍보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시행

## 올해 마지막 기회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전주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총 1억 원을 투입해 31대 가량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총 15대를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사업 물량은 약 16대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을 제외한 차량은 약 1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김은지 기자

# 전주에서 전국 최고 드론축구팀 가려

## 제9회 전국 드론축구 대회 개최
## 전국 최강팀 22개 팀 참가
## 수준 높은 격돌 예고

전국 최대 규모 드론축구 대회가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8일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에서 '2026 제9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미프로와 마스터즈, 챌린저스 등 3개 부문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22개 팀, 250여명 선수단이 참가해 화려한 드론 비행 기술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 당일 오전 11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2층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세미프로 팀인 '샤크'와 '챌린저'의 박진감 넘치는 식전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주요 내빈과 선수 대표가 함께하는 '드론축구볼 시축' 등으로 꾸며진다.

본 경기는 세미프로 리그와 챌린저스·마스터즈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팀들은 오전 예선전을 거쳐 오후 2시부터 본선 4강전과 결승전을 차례로 펼치게 되며, 부문별 우승 팀을 포함해 총 15개 팀에 전주시장상, (사)대한드론축구협회장상과 함께 총 18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두 바퀴차 안전모 미착용 특별단속

## 교통사망사고 ZERO(0건)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6주간 '두 바퀴차(이륜차·PM)안전모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교통사망사고 ZERO(0건)을 달성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현장 활동을 강화해 안전모 미착용 총 382건을 단속했다. 이는 적극적인 현장 단속 추진 결과로, 전년 동기(240건) 대비 59.2%(142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에 힘입어 해당 기간 두바퀴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9.5% 줄었으며, 부상자 역시 39.6% 감소했다.

특히 전년도 동기간 3명이었던 사망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영 전북청장은 "안전모 착용은 두바퀴차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착한운전 캠페인'과 함께 안전띠·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이 지역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주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간 글로벌 협력 확대

## 전주 우수 음식문화 공유
## 전 세계 음식창의도시들과
## 국제 교류 강화

전주시가 전세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되는 '2026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연례회의(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Gastronomy Annual Meeting 2026)'에 참가해 세계 음식창의도시들과 지속가능한 음식문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례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음식문화와 관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 음식창의도시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도시별 사례 발표와 정책 토론에 참여해 △전주비빔밥을 중심으로 한 음식문화 콘텐츠 육성 △전주한상 브랜드 구축 △전주비빔밥축제 운영 △음식문화 기반 관광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정책 등을 소개해 참석한 음식창의도시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시는 전주의 대표 음식과 관광자원, 한식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전주가 가진 천년 역사와 문화, 음식이 어우러진 도시의 매력을 세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를 통해 시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도시들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연례회의 참가를 계기로 세계 음식창의도시들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음식문화 교류 사업과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음식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 2026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 온라인 작품 접수 8월 28일까지

전주덕진소방서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공동 주최 '2026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공식 접수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은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국민참여형 작품 공모를 통해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방안전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접수 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표어(캘리그라피) △포스터(움직이는 영상 형식의 모션 포스터 포함) △사진 등 3개 부문이다.

불조심 및 생활안전과 관련해 예방의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며, 분야별 1인당 1개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8월 28일 마감 전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https://fire.go.kr)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분야 및 규격에 맞춘 작품 파일과 제출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묶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47점의 상장과 1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우수작은 오는 11월 시상식 개최 후 '제79회 불조심 강조의 달' 전시회 및 소방정책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벼 공동방제' 농가 부담 줄여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 벼 병해충 발생 대응 총력

전주시가 농가 생산 안정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지원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올해 총 7억2000만원을 투입해 총 4회에 걸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동방제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벼 재배 농지 940ha, 870여 농가를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상 농지에는 지난달 말 무인항공기 1차 공동방제가 실시됐다.

이어 이달 4~7일까지 2차 방제 예정이며 오는 8월 말과 9월 초에 3~4차 방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동방제를 통해 도열병 선제적 예방과 이삭도열병 확산을 차단과 이화명나방과 혹명나방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시는 영농 인력이 부족한 농업현장을 위해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6일 목요일

#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4지구 택지 공개입찰

### 21필지 경쟁입찰 공급 최대 18개월 분할 납부 초기 자금 부담 완화 10~11일까지 진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가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실수요자 대상 택지 2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단독주택용지 10필지 △근린생활용지 6필지 △일반상업용지 5필지 등 총 21필지(7,758.5㎡) 등이다.

익산 부송4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지구로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공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개찰결과는 오는 12일 온비드 및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북개발공사는 특히 이번 택지 21필지 공급에서 계약금은 낙찰금액 10% 이상 납부하면 잔금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해 실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익산 부송4지구 내 실수요자 대상 택지 공급"이라며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공급 조건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상 토지의 위치, 공급예정가격, 입찰 방법 및 지구단위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인재육성 '큰 보탬'

### 교육환경개선·문화예술발전 미래세대 후원 앞장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역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5일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전북 김제시 부안군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를 방문해 인재육성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부안초 관악부 노후 악기 교체와 신규 악기 구입 그리고 전문교육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안초 관악부 학생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음악활동을 토대로 전문 음악 활동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는 지난 1981 창단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 대표 관악부이기도 하다.

특히 관악부는 제48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초등부 최우수상을 비롯해 전국대회에서 50회 이상 입상하는 등 지역 대표 학생 관악단으로 이미 국내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금을 전달한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지역학생들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전달 자리에는 장길환 본부장, 김강주 부안초등학교장, 조상완 농협 부안군지부장 등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뜻을 함께한 분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 위한 '행복채움금융교실', ESG 실천 '교실숲', '그린액션' 등 미래세대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과테말라 맞춤형 농업기술 '성과'

### 육묘·비닐멀칭·트랩파종기 기술 보급… 식량난 해결 농업 발전에 기여

'K-농업기술'이 중남미 과테말라 작물 생산성과 농가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일 과테말라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2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이하 코피아) 현장사무소(소장 권민)를 열었다.

과테말라 동부 건조회랑(dry corridor)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mm도 채 되지 않아 매우 건조하며 관개용수 확보도 어려워 소규모 농가 작물 생산도 불안정한 지역으로 꼽힌다.

또 극심한 가뭄과 함께 병해충 발생이 많아 전체 인구(약 1897만명) 절반 이상(56%)이 빈곤에 시달리며 농촌지역 빈곤율은 70%에 달한다.

과테말라사무소는 가뭄에 견디는 힘과 초기 생육을 높이기 위해 채소 농가에 육묘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육묘재배기술'을 전수하며 아마티틀란 농촌지도소에 채소 모종을 대량 생산·보급할 수 있는 '공정육묘장(8×20m 규모)'을 조성했다.

코피아 과테말라사무소는 15개 감자 실증마을에 두둑을 비닐로 덮고 씨감자를 심는 '비닐 멀칭 재배 기술'을 보급했다.

아울러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실증마을 10곳에 '한국형 반지하 형태의 저장고'를 설치했다.

코피아 사무소는 18개 프리홀 실증마을에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큰 골칫거리, '꽃총채벌레' 방제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종기 보급으로 노동력 부담도 크게 덜었다. 10명의 작업자가 0.7헥타르를 손 파종으로 8시간이 걸린 반면, 파종기를 사용했더니 작업자 1명이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최광호 기술협력국장은 "과테말라의 식량난 해결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산 농기계와 농자재의 수출 길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은 5일 과테말라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농진청>

# 국민연금공단 '국민 참여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영상·이미지 분야 합산 최대 2개 작품 응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인공지능 활용 기초연금 국민 참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눈높이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도구로써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회 마련에 목적이 있다.

특히 공모전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회보장제도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으로 알리는,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기초연금'이다.

공모 분야는 영상 콘텐츠와 이미지 기반 콘텐츠로 나뉜다.

기초연금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며 참가자는 공단 SNS 채널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안내되는 접수 홈페이지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영상·이미지 분야 합산 최대 2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총 6개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1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상금 100만원), 우수상(2명)과 장려상(3명)에는 공단 이사장상(상금 각 50만원, 3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 작품들은 공단 SNS 채널과 전국 지사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기초연금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공모전은 디지털 환경 창의적 공감형 홍보 콘텐츠 발굴을 중점으로 기획됐다.

/정소민 기자

# 바이오진흥원,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공유

### 전북 미생물·식품소재 종자산업 연계 혁신생태계 논의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5일 '제18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해 국가 바이오정책 최신 동향과 전북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북이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포럼으로 올해 18회째로 '문샷(Moon shot)'은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처럼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연구와 도전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식품·바이오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임직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정찬민 서기관 주제 강연과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찬민 서기관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과 바이오정책의 최신 방향'을 주제로 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국가 바이오정책과 지역 농생명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글로벌 선도산업 육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혁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창업·사업화 투자 확대, 글로벌 공동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바이오 데이터와 산업 클러스터, 연구 인프라를 연계하고 규제혁신, 융합인재 양성, 바이오안보 강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공유됐다.

나아가 농업·식품 분야 미래 성장동력인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포럼을 통해 공유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전북의 농생명자원과 연구·생산·실증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화,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은행>

# 전북은행 '전북현대 팬 사인회' 큰 호응

### 문화 발전 활성화 기여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6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가 5일 본점 1층 JB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사인회에는 전북현대모터스FC 박지수, 김승섭, 모따, 이동준 등 주요 선수들이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팬들과 사인 및 인사를 나누는 등 즐거운 소통 시간을 가졌다.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 행사는 전북은행이 K리그1 10회 및 FA컵 6회 등 최다 우승 챔피언인 전북현대모터스FC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도내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총 1253명이 전북은행 쏙뱅크 앱을 통해 팬 사인회 참가를 신청했으며 전북은행은 100여명을 선정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내준 고객과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중기청,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기업 후속 지원

### 선정 80개사 사업화 자금 2억원 지원 오는 26일까지 모집

중기부 전북중기청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중 시장검증(PoV)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기업 후속 지원사업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이번 스타트업 모집을 통해 80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선정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 2억원을 지원할 전망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이란 외부 자원 협력 새로운 가치 창출 혁신 가속 전략. 'PoV'란 새로운 솔루션이나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치를 검증하는 과정.

스타트업 희망 참여기업 모집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사업은 스타트업 시장검증(PoV)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투자유치와 구매 계약 등의 효과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 성과 뒷받침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중 사업별 최종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우수 또는 최우수)이거나 수요기업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우수 또는 최우수) 이상인 경우 밋업을 통해 스타트업과 수요기업 매칭 및 협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협업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종료 후 기존 수요기업과 후속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PoV) 등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협업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 세부 내용은 K-Startup 누리집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전북중기청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중 시장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기업 후속 지원사업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사진=중기부>

# 전주 초등 방학 최대 26일 격차… 원인은 '시설공사'

### 최장 46일~최단 20일
### 8월 중순 개학 집중
### 폭염 대책 지적

2026학년도 전주시 초등학교의 여름 방학 기간이 학교마다 최대 26일씩 벌어지며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내 초등 75곳의 학사일정을 분석한 결과, 여름방학이 가장 긴 곳은 전주동초등학교로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46일간 휴업에 들어간다. 이어 전주삼천초등학교(45일), 전주전라초등학교(42일) 등의 순으로 길었다.

이들 학교는 대다수 기간에 내진보강이나 배관 교체 등 대규모 시설 공사가 겹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달리 전주완산초등학교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일만 쉬어 가장 짧았다. 전주진북초와 전주초등도 21일에 머물렀다.

이처럼 일정이 짧은 곳은 겨울철에 공사 일정이 잡혀 있어 상대적으로 겨울 휴식기를 길게 두는 형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므로, 학교별 휴가 일수는 사실상 공사 일정에 따라 갈리는 구조다. 실제로 지역 내 개학일은 이달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전체의 76%(57곳)가 몰려 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8월 중순에 문을 열어 학생들이 무더위 속 등교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휴가 시기를 폭염 기간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의무 수업일수와 공사 스케줄 등 현실적인 제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급 학교의 신중한 조율이 요구된다.

전주 시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한창 더운 시기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방학 기간이 학교 공사 일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풍성해진 콘텐츠로 돌아오는 군산북페어"

### 북마켓 참여 204팀으로 확대…28~30일 개최

군산시는 지난해 전국의 2030 독서가들과 출판인들 사이에서 대표 도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군산북페어'를 올해 한층 더 풍성한 콘텐츠와 커진 규모로 개최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군산북페어 2026'의 행사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연장하고, 개최 장소 역시 기존 군산회관에 더해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까지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일정별로 내실을 기해 더욱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깊이 있는 담론이 오가는 건축 포럼을 개최하고, 이어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은 본격적인 '북마켓'이 펼쳐져 전국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다.

'군산북페어 2026'은 전국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타 지역 방문객 비율이 70%에 달했던 지난해의 성공을 발판 삼아 북마켓 규모를 크게 확장했다. 지난해 140팀에서 대폭 늘어난 총 204팀의 국내외 창작자와 독립출판사·동네책방이 참여해 더욱 다채로운 독서 생태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창작자와 독자가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먼저 메인 군산회관에서는 국내외 창작자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북마켓이 열린다. 초청 2팀을 포함한 해외 11팀(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참여해 글로벌 독립출판 트렌드를 공유하며, 매니아층과 대중성을 동시에 사로잡을 독립출판 형태인 '진(Zine)' 영역을 새롭게 추가·확대했다. 또한, 군산의 출판사와 동네책방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빌리지'를 한층 강조해, 지역 고유의 출판·독서 문화 역량을 깊이 있게 전달하도록 기획했다.

또한, 북디자이너 전시를 비롯해 취향껏 문장을 골라 가는 텍스트 뷔페 전시, 만화 전시, 진(Zine) 전시 등 방문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볼거리의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 중이다.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에서는 올해 첫선을 보이는 신규 마켓인 '만화당'이 펼쳐진다. 국내 참여 19팀과 대만 1팀의 만화 창작자가 참여하는 '만화당'은 서브컬처와 대중 만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독립만화를 소개하는 자리다. 도서관 관리과 관계자는 "8월 28일 포럼을 시작으로 29~30일 북마켓까지, 깊이와 즐거움을 모두 잡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참여팀 수도 200팀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만화당, 진, 군산빌리지 등 한층 풍성해진 만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고창군, 뮤지컬 '전국노래자랑' 13일 공연

고창문화의전당이 뮤지컬 '전국노래자랑' 공연을 오는 13일 저녁 7시30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모티브로 한 트로트 기반 창작 주크박스 뮤지컬로 친숙한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공연이다.

특히 시장의 '전국노래자랑 유치' 선언을 계기로 벌어지는 이야기와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내던 꿈을 다시 찾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현실감 있게 그려진다.

뮤지컬 '전국노래자랑'은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는 트로트계의 황태자 '신유'와 대한민국 1세대 최정상 아이돌 베이비복스 출신으로 변함없는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 '간미연'이 남녀 주인공으로 두 배우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무대를 장악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고창군>

티켓예매는 오늘 오전 9시부터이며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현장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치유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도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2026 치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오롯이, 예술로 치유'를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심리·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도민에게 맞춤형 치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총사업비 6천 4백만 원 규모로 운영단체 4개소를 선정해 단체별 1천 6백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치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을 지닌 도내 문화예술기관·단체이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치유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연령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재단은 올해 '가산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참여 인력에 △문화예술교육사 1인 이상이 포함되거나 △교육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 각 항목별로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향후 재단은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활동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교육문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 전북교육청, 내년도 교사 307명 선발

### 유치원·중등↓·특수·비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정규 교과와 유치원은 감소하고 특수 및 비교과 영역은 확대되는 등 직렬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5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총선발 예정 인원은 307명으로, 전년도 사전예고 총규모(358명)와 비교해 51명(14.2%) 감소했다. 최종 선발 예정 인원(451명) 기준으로는 144명이 줄어든 규모다.

학교급 및 직렬별 증감 추이를 보면 방향성이 뚜렷하게 갈린다. 우선 유치원은 60명에서 7명으로 무려 53명(88.3%) 급감하며 도내 교육계의 두드러진 감소 타격을 입었다.

중등 교사 역시 140명으로 전년도 사전예고(189명)보다 49명(25.9%) 줄었으며, 초등 또한 5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유치원(-53명), 중등(-49명), 초등(-6명)의 감소 폭이 전체 총량 축소를 주도했다.

반면 현장 수요가 높은 특수 및 비교과 직렬은 일제히 늘어났다. 특수교사는 18명에서 40명으로 22명 증가했고, 보건(11명→26명)과 전문상담(9명→24명) 각 15명, 사서(3명→6명) 3명, 영양(10명→12명) 2명이 각각 확대됐다.

정규 교과와 유치원에서 감축된 인원의 상당 부분이 특수·비교과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학교 현장의 인력 배치 구도가 점차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숫자는 퇴직 및 휴·복직 등 변수를 반영한 잠정 수치다. 향후 시행 계획 및 확정 공고는 유·초등·특수 분야가 다음 달 9일에, 중등 및 비교과 분야는 같은 달 30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사진=정읍시>

##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단체전 정상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의성군청과 문경시청, 용인시청, MG새마을금고를 차례로 꺾고 문경 모래판을 제패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6 문경오미자장사 씨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문경시씨름협회가 주관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16강에서 의성군청을 4대1로 제압한 데 이어 8강에서는 개최지인 문경시청을 4대2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도 용인시청을 4대2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MG새마을금고였다. 단풍미인씨름단은 마지막 승부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해 4대1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해 열린 '2025 문경오미자장사 씨름대회'에서 박상준 선수가 소백급 정상에 올라 소백장사에 등극한 데 이어 올해는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개인전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태백급에 출전한 김원호 선수는 체급 강자들을 연이어 꺾고 3위에 올라 향후 태백장사 등극 가능성을 보여줬다.

박희연 감독은 "훈련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덕두영농조합, 정읍시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덕두영농조합법인(대표 김학구)은 5일 정읍시 벼 신품종 '달하미' 확대 보급사업을 통해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달하미'의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도움을 환원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의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김학구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정읍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소중한 장학기금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이루는 데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태인면에 자리한 덕두영농조합법인은 벼 도정과 단풍미인찹쌀 유통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루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벼 도정시설과 60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창고를 갖추고 지역 쌀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인재를 위한 나눔도 꾸준히 이어왔다. 덕두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초록우산 익산후원회·㈜미첼 나눔문화 확산 '앞장'

익산시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익산시는 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회장 유기달)와 ㈜미첼(대표 윤성원)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셔츠 1억 2,0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탁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온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와 ㈜미첼은 2021년부터 매년 의류 등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유기달 회장은 "치솟는 물가로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숙 복지정책과장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와 ㈜미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해경, 어청도 응급환자 긴급이송… 골든타임 확보 최선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5분께 어청도 보건지소장은 응급환자 발생 사실을 해경에 알리고 육상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60대 여성 환자는 과호흡과 양팔 경직증세를 보여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군산항으로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용리 군산해경 수색구조계장은 "도서지역의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 해양활동과 도서지역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청년 성장 적극 지원 2(題)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 청년 맞춤 종합 지원

익산시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해 41명이 수료하고 13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현재 63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이나 학업 중단 등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민선 9기 익산시는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 등 5개 분야 82개 청년정책에 총 409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자립·취업·지역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의 하나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정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미 청년일자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유주방' 참여자 모집

### 임대료 50% 감면

익산시가 외식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 제4기 예비 창업자를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공유주방은 익산시가 2022년부터 중앙동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다. 배달형 외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익산시민이며, 총 3개 팀을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익산시청 미식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내달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까지 맞춤형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 1년간 계약을 체결해 공유주방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성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1년을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료 50% 감면과 운영·마케팅 컨설팅, 공공요금, 배달용기 지원 등 초기 창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용현 미식위생과장은 "청년공유주방이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든든한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취약계층 나눔 실천

### 옥구농협 동참, 생필품 지원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와 옥구농협(조합장 전봉구)은

군산시 옥구면에 거주하는 관내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을 펼쳤다.

농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農가치 캠페인)으로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농협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돌봄 대상자 어르신이 '농업인행복콜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어려움이 접수된 현장으로 달려간 'NH농촌현장봉사단'은 실사를 거쳐, 농협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맞춤형 꾸러미를 전달해 고충을 해결해드렸다.

옥구농협 전봉구 조합장은"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김범석 지부장은"농심천심 운동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농협의 나눔 실천""농심천심 운동을 바탕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따뜻한 농협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새만금 주요 현안 대응 '총력'

### 군산시의회와 추진상황 공유 등 협력방안 논의

군산시는 5일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비롯해 현대차 투자, 새만금 핵심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안별 대응 방향과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신항 관할구역 결정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단계에 맞춰 수시로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내외 홍보활동과 전문가 자문, 법률 검토, 정책자료 보완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산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시기와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안전한 밤길 조성 나선다

### 스마트보안등 설치

익산시가 야간에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안전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관광지와 학교 주변, 농촌 골목길 등 야간 보행 취약지역 100곳에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어두운 시간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생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과 외곽지역까지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스마트보안등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센서 조명시설로, 주변 밝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점등된다.

별도의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어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도 안정적인 조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에너지 사용량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스마트보안등과 로라(LoRa) 통신망, 운영 서버를 연계해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버리던 가로수 가지가 에너지로"

### 폐기물 처리비 탄소 배출 줄인다

정읍시가 버려지던 도시숲과 가로수의 전지 부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되살려 폐기물 처리비와 탄소 배출을 함께 줄인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2층 시장실에서 포레스트 주식회사와 '미이용 산림자원(바이오매스) 무상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이용 산림자원은 산림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 가운데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목재 자원을 말한다. 지역에서는 주로 도시숲과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진=정읍시>

그동안 이러한 가지와 부산물은 임목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레스트 주식회사가 해당 부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한 뒤 목재칩 등으로 가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한다.

시는 임목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버려지던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폭염 대비 현장 점검 강화

군산시 수송동 김도현 신임 동장이 지난 4일을 시작으로 관내 30개소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폭염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지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찾아와 건강을 확인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김도현 수송동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농촌 현장 찾아 예방수칙 안내 및 예방물품 전달

익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5일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와 함께 농촌 지역 경로당 등을 찾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을 중심으로 무더위 시간대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의 중요성 등을 알리고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요원 운영과 폭염특보 상황 전파, 농업인 안전교육, 현장 예방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며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생활개선회 임원들과 함께 농촌 마을을 찾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 자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갈증을 느끼기 전 물 자주 마시기 △어지러움·두통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현장 예방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정자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활개선회와 함께 현장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출범

정읍시가 오는 10월 8일 개막하는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 개최를 이끌 제7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는 지난 4일 이학수 시장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강연천 위원이 제7기 추진위원장에 선출됐다. 강 위원장은 현재 정읍시 이·통장연합회장과 산내면 이·통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올해 축제의 세부 추진계획과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구절초 지방정원의 경관을 살린 행사 구성과 방문객 편의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해마다 축제 현장에서 온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방정원의 위상에 걸맞은 명품 경관을 선보이고 정원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제7기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진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세부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린다.

/정읍=김정인 기자

#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미래산업 육성

## 크루즈물류 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제시가 올해 연말 예정된 새만금항 신항 2선석 조기 개항에 발맞춰 크루즈 및 연관 물류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5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물류 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2선석 조기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8대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항 신항을 기점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과제로 하는 용역을 착수하는 등 단계별 실행에 나섰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정식 크루즈선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 연구들과 연계하는 한편, 크루즈 산업을 관광 중심 기능을 넘어 항만과 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만금항 신항을 물류와 공급, 소비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는 국내·외 크루즈 물류산업 벤치마킹을 통해 새만금항 신항과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를 아우르는 동반성장전략을 도출하고 특히, 김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생명, 식품, 내수면 어업 등을 강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넘어 선용품 및 식자재 공급, 배후 물류·소비 인프라 구축 등 크루즈 파생 물류산업을 김제시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환황해권 거점 항만이자 김제시 해양경제 시대를 열어갈 핵심 인프라"라며 "오는 12월 개항에 대비해 크루즈 선용품 공급과 물류 인프라 확충 등 파생산업 선점으로 김제시가 환황해권 물류·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부안, 여름철 맞춤 복지 강화 2(題)

##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김제시보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간 의약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공백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이나 휴일 갑작스럽게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는 물론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을 제공해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에는 여행 중 발생하는 발열, 소화불량, 벌레 물림, 상처 등 경증 질환으로 의약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 공공심야약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시는 휴가기간에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김제시 공공심야약국은 나은온누리약국, 새종로약국 2개소로 운영되며, 운영 관련 문의는 김제시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휴가철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심야약국을 적극 이용해 안전한 복약지도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무더위쉼터 지정

부안군은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는 이중 열돔 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역대급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안읍 남문안길 5-3에 위치한 수소하우스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소하우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폭염에 지친 군민들이 언제든 더위를 피해 시원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개방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일상 속 안전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수소하우스는 군 수소인프라의 안전과 운영을 총괄하는 수소도시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겸하며 수소에너지 홍보관, 북카페, 연료전지 족욕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수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태 경제산업국장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중 열돔 현상과 극한 폭염 속에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농촌공간 새롭게 짠다"

## 거점별 특화성장·지속 가능한 순환구조 형성

민선 9기 고창군이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특화성장 거점과 순환구조 형성'을 핵심으로 농촌공간계획을 마련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동리국악당에서 지역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기본계획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10년(2026~2035년)간의 청사진으로 제시됐다.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비전은 '글로컬 농촌 고창(K농촌공간의 기준을 고창이 만든다)'로 설정됐다. 지역별 특화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경제 순환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농촌재생활성화 지역을 3개 권역으로 편성했다. 권역별 △서북부(생태관광중심= 상하·해리·심원·부안·아산) △북동부(산업·일자리중심=흥덕·성내·신림·고창·고수) △서남부(농업·식품중심=공음·무장·성송·대산)로 특화된다.

고창군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창군 농촌공간 정책심의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창군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 백산성지 조성 등 정부예산안 반영 요청

부안군은 방상윤 부군수가 5일 서울 반포 조달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처 예산 심의장을 찾아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건의한 데 이어 국회를 방문해 하반기 주요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상윤 부군수는 먼저 박성주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을 만나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7년 준공에 필요한 국비 70억 8100만원이 정부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부안을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어 방상윤 부군수는 박지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현재 기획처 단계에서 심의 중인 군 국가예산 중점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줄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안 변산 마실로드 관광도로 지정 등 하반기 주요 공모사업의 대응 상황과 사업 필요성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방상윤 부군수는 "정부예산안 심의와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국회,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의료에서 생활까지 맞춤 지원

## 취약계층에 냉장고 전달

부안군은 여름철 계속되는 무더위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5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가정용 냉장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장기 입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케어플랜(맞춤형 서비스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현장 상담 결과 기존 냉장고가 노후돼 식품 보관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가 의료급여 선택급여(필수생활용품)로 가정용 냉장고를 지원하게 됐다.

특히 여름철 폭염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음식물 부패와 식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냉장고 지원은 단순한 가전제품 지원을 넘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의료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장기 입원자가 퇴원 후에도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식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의 욕구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냉장고 지원 역시 대상자의 건강 유지와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군은 앞으로도 의료급여관리사를 중심으로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한국철도공사와 교통 활성화 '맞손'

## 스마트쉘터 설치… 관광 활성화

김제시가 김제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대폭 높이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쉘터를 설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풍동 신바람이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역 앞에 20미터 길이의 쉘터를 설치했다.

스마트 쉘터에는 내부에 온열의자, 냉난방기, 홍보 안내판 및 버스 및 열차 운행 정보 시스템 등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축된다.

특히 내부에는 시와 코레일이 함께 운영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김제시 관광안내 책자와 기차·버스 시간표를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5월 18일 '지역교통 발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역 교통인프라 발전 협력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용완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철도 연계 교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폭염피해 예방 현장점검반 운영

부안군 백산면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과 취약계층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인1조 3개반으로 구성된 폭염피해 예방 현장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1일부터 폭염특보 상황 종료 시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농현장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농업인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야외활동 및 농작업 자제 등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농작업 중인 주민에게는 폭염 취약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폭염 대응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새만금 관할권 후속조치 추진

김제시는 새만금 매립지 김제시 관할 결정에 따른 실효적 관할권 확보와 체계적인 후속 행정조치 추진을 위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 및 자문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에 대한 부서별 후속 행정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 구축과 중장기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시는 관할결정 이후 지적등록, 시내버스 운행, 쓰레기 수거 등 기본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생활 및 지역발전과 밀접한 신규 사업들이 다뤄졌다.

주요 신규 사업은 △새만금권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새만금 편입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함께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새만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등 첨단농업 거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보고됐다.

이 부시장은 "새만금 행정구역 확보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까지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서별 실행 체계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상하농원·해들녘 영농조합 등 '성실납세자' 시상

고창군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재정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준 '상하농원'과 '해들녘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납세자 2곳과 개인납세자 3명 등 총 5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인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선정했다. 2년간 법인세무조사 유예와 금융서비스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없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50인을 선정했으며, 인증서 제공과 모범납세자에게는 고창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정묵 고창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해주신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지역발전협의회 무더위 극복 얼음물 나눔

부안군지역발전협의회(회장 전용호)는 5일 부안터미널 사거리 일대(투썸플레이스 앞·프라자약국 앞)에서 무더위 극복을 위해 직접 기부한 얼음물 1만병을 회원 20여명이 주민들에게 직접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총 10개 사회단체가 릴레이로 이어가는 여름철 생수 나눔이라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여타 캠페인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협의회의 이번 행보는 그 깊이와 결을 달리한다.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협의회가 그간 다져온 묵직한 지역 발전 과제들과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원들이 건넨 얼음물 한 병은 단순한 갈증 해소용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부안의 내일을 위한 협의회의 진정성이 담긴 활동이었다.

현장을 진두지휘한 전용호 협의회 회장은 거리를 오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물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 회장은 "폭염이라는 기후 재난에 가까운 무더위 속에서 군민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협의회가 당연히 앞장서야 할 소임"이라며 "우리의 활동은 단순히 물 한 병을 건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안의 구체적인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적 발걸음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폭염 대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고창군이 폭염경보 속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맞춤형 돌봄 강화에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4일 고창군 보훈회관에서 4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폭염 대응 체계와 통합돌봄 사업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창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비롯해 수행기관 중간관리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폭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치매 노인과 고위험군의 안전 확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고창군 통합돌봄 사업의 세부 계획과 △안전 365 주거개선 △돌봄반찬 △이웃살림 맞춤 가사지원 등 지역특화서비스를 안내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다"며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는 수행기관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어르신도 돌봄 공백을 겪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 순창군, 청년·주민 참여 확대 2(題)

## 주민참여예산위원 첫 공개모집

순창군이 군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은 순창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추천 중심의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군은 지역별 균형과 함께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성과 대표성을 갖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개모집 인원은 12명 이내로, 순창읍 2명, 나머지 10개 읍·면은 각 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순창군 관할지역 소재 기관·사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 기획예산실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 제안, 운영 성과평가 등 순창군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 선정은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사하며, 연령, 성별, 사회적 약자, 지역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28일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모집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설명회 개최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은 지난 4일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사업 선정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원 내용과 준수사항, 적립금 관리 방법, 만기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도 참석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 참여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영일 군수는 "청년은 순창의 미래이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군이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비롯해 청년창업, 청년활동,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 구 남원역 역사생태공원 조성 본궤도

## 7일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나서 환경평가·사업구역 지정 진행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인공원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일 오전 10시 남원시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만인공원 조감도 <사진=남원시>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2017~2027년, 연 면적 82,635㎡로 사업비 30,441백만원(국 3,887, 시 26,554)로써 오랜기간 활용되지 못한 구)남원역 일원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심 중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만인공원은 만인의총과 광한루원 등 남원의 대표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해 있어 역사와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녹색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만인공원은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을 잇는 도심 속 역사생태공간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남원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원이 될 것"이라며 "주민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파크골프장 운영 손질 "공정 환경 조성"

## 2027년 7월 직영 운영 목표 시설관리 일원화·조례 제정

완주군이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기반 정비에 나선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은 총 10개소 180홀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체육공원과 3개소, 산림녹지과 6개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로 6개소 171홀의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용자 중심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파크골프클럽 면담 및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관리인력 배치를 통해 시설 유지보수와 이용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2027년 7월 파크골프장 직영 운영을 목표로 직영 전까지 시설 정비 및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은 "파크골프장이 특정 이용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직영 운영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화장품, 오프라인 판로 넓힌다

## 하나로마트 고죽점 매장 운영 기업 5곳 참여 홍보 강화

남원시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지역 화장품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나로마트 남원농협 고죽점에서 '남원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2026년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되던 지역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보고 체험한 뒤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판매장에는 남원 지역 화장품 기업 5개사가 참여해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등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은 하나로마트 외부 출입구에 조성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제품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시연과 할인 행사 등 다채로운 홍보·판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남원 지역 화장품 기업들은 지리산권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원료 발굴부터 제형 개발, 완제품 생산까지 뛰어난 전문적인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판매 공간이 부족해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판매장 운영을 통해 기업에는 안정적인 오프라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남원 화장품을 생활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장에 앞서 8월 초에는 시민 공모를 통해 판매장 이름을 선정한다. 남원 화장품의 특색을 담은 명칭을 선정해 판매장 간판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 노인역량활용사업 우수 수행 참여자 관리·사회서비스 호평

완주군 수행기관인 완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5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성과와 참여자 관리,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완주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참여자 관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867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활동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시니어클럽의 우수 수행기관 선정은 수행기관과 참여 어르신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천문과학관 여름 과학체험 '풍성'

## 낮 태양·밤 별자리 관측 운영 바리스타 로봇 등 이색 체험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원시천문과학관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천문과학관은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대표적인 천문과학관으로 600mm 대형망원경 및 관측용 전문망원경 6종을 갖춘 관측실, 4D 천체투영관과 함께 해시계, 자격루 등의 과학체험물 14종을 새롭게 활용해 전시 체험콘텐츠를 한층 강화한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에는 태양관측, 밤에는 별자리와 행성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간대별로 색다른 천문·우주 과학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새롭게 개관한 호남권 유일의 4K 풀돔 4D영상관은 생동감 넘치는 영상과 입체적인 특수효과를 통해 우주와 과학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콘텐츠로, 스릴 넘치는 모험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동시에 제공해 교육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남원시>

이와 함께 관람객들은 체험 프로그램 사이에 바리스타 로봇이 직접 제조하는 커피와 음료, 소프트아이스크림 등을 즐길 수 있어 과학기술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귀촌가족 맞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 '같이의 가치' 5주 과정 진행 XR버스투어·AI 영상 제작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가족 참여형 귀촌 라이프 스토리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를 오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 완주 가가호호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주말부부와 귀촌가족이 많은 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 귀촌가족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족 소통 프로그램에 완주의 대표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관광 콘텐츠를 더했다.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족들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같이의 가치'는 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비롯해 XR 버스투어를 통한 완주 여행, 지역문화·관광자원 탐방, AI와 예술기술을 활용한 가족 추억 영상 제작, 완성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완주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의 추억을 예술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정서적 교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귀촌가족의 지역 이해와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완주 콩쥐팥쥐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재단은 이어 산업단지 근로자 가족을 위한 생활공예 프로그램 '오늘도 우리를 위한 생활공예'도 운영한다. 자개 미니 식기세트 만들기, 재봉틀 활용 베개커버 제작, 여행용 대형 파우치 만들기 등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예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역량강화 실무교육

순창군은 지난 4일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및 지회 회장·총무 등 43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협의회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이 귀농귀촌 정책과 보조사업 추진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에 귀농귀촌 정책과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을 소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실무를 주제로 교육과 토론을 실시했으며, 이어 힐링스파 등 순창군 주요 시설을 견학·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협의회 회원들은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보조금 집행·정산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토론을 통해 협의회 운영과 사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시립국악단 상설공연 '아버지의 해방일지' 개막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관람료 결제 후 티켓 수령 시 남원사랑상품권 1만 원을 환급하는 혜택도 더해져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 청아원에서 정지아 작가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국악극을 선보였다. 이날 양충모 남원시장은 공연장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하고 관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번 작품은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온 주인공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그의 삶과 가족사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흥겨운 소리와 춤, 해학적인 장면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한편, 지리산에 얽힌 현대사의 아픔과 가족의 화해를 소리와 연기로 깊이 있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긴다. 특히 원작에는 없는 장례식장 직원 4인방을 새롭게 구성해 극의 재미와 활력을 더했다.

이번 작품에는 최용석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송지훈 작곡가, 장서윤 작창가, 정소연 움직임 연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오는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청아원에서 공연된다. 관람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료 결제 후 티켓 수령 시 남원사랑상품권 1만 원을 환급해 공연 관람과 함께 지역상권 이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 청소년 진로드림캠프 참가 서울대생 멘토와 진로 탐색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이 관내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와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어촌 청소년 진로드림캠프'에 참가한다.

완주군은 지난 2008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청소년 교류·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이번 캠프는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이 주최하는 진로 지원 사업으로, 완주군이 추천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4명이 참가한다.

캠프는 4일부터 시작해 6일까지 2박 3일간 무주반딧불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서울대학교 교육봉사단체 드림컨설턴트가 멘토로 참여하며, 완주군을 비롯해 삼척시와 예천군에서 추천된 고등학생 총 70여 명이 함께한다.

참가 학생들은 7단계 꿈찾기 멘토링을 비롯해 직업박람회, 모의면접, 드림스토밍, 1대1 멘토링, 드리밍 페이퍼 등 다양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진학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 이서면, 남성 자립 지원 '이서천사 요리교실' 시작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택균, 소미례)는 지역 내 독거남성의 건강한 식생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이서천사 요리교실'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요리교실은 오늘부터 매주 1회씩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중장년 홀몸 남성을 대상으로 기초 요리 기술을 전수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이서천사 요리교실'은 지난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며, 함께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미례 이서면장은 "요리교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남성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임실군,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시작

임실군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공동·개별주택은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26호이다.

의견청취 제도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 계북면, 말복 맞아 생닭 500마리 나눔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 3일 말복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생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계북면 17개 마을과 계북 대표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북면 출신 출향인 황봉찬 씨가 고향 주민들을 위해 생닭 500마리를 기탁했다.

기탁된 생닭은 계북 대표경로당과 지역 내 17개 마을에 전달됐으며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루 전달됐다.

황봉찬 씨는 "고향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계북면은 지역사회와 출향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위기청소년 정서치유 여수 문화체험 운영

임실군은 지난 3일 관내 위기(가능)청소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서치유 문화체험 활동'임실 아이들의 특별한 만남, 설레는 여수체험'을 운영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의 핵심 기조인 '위기청소년 맞춤형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적 소외를 겪기 쉬운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자존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다차원적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수 유월드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체험은 롤글라이더, 루지, 놀이공원, 5D 모션시네마, 키즈파크 활동 등 또래 친구 및 지도교사들과 함께 역동적인 신체 활동을 즐기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아이들이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활기찬 야외 체험을 즐기며,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지도자들에게도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하수관로 정비 '박차'

### 설천면 대불리 일원 오는 2028년까지 신설·정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사진=무주군>

무주군이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설천면 대불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설천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이송·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총사업비 137억 6천4백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하수관로 11.8km를 신설·정비하고 178가구에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소통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리 일원 5개 마을(나림, 불대, 외북, 내북, 하미·중미)을 순회하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 기간을 안내하고 마을별 세부 공사 일정을 공유했다.

또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봉열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근 수계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을 안길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 안전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에는 적상면 괴목리 상조마을의 '치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26~2028)'과 '마산괴목지구(상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2026~2027)'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무주군은 70여억 원이 투입되는 '치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적상면 괴목리 상조마을의 하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마산괴목지구(상조)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총사업비 8억여 원)'을 통해서는 상수관로와 60톤 규모의 배수지, 가압장 1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 소액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장수군은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실태조사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주요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직무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체납 관리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입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납부 안내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환경과 경제 상황, 납부 여력 등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계기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징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2026 홍삼축제 실무추진단 출범

### 축제 성공개최 위한 준비 박차

전북 진안군은 5일 오후 3시 군청 강당에서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경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과 부읍·면장 등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완성도 높은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경영 단장은 "진안홍삼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삼의 매력에 삼며들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6 진안홍삼축제는 9월 17일 진안고원시장 천변에서 열리는 전야제 낙화놀이를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풍성한 먹거리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 가동

### 현장 소통 행정 강화 매주 수요일 상담 창구 운영

임실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낸다.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정기적인 전문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대리인 등 군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임실군청 3층 건설과에서 진행되며, 개발행위팀 직원이 전담으로 배치되어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및 규제 안내, 인허가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등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주요 쟁점 사항이나 복합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산림·농지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상담을 추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대면 상담을 통한 사전검토로 향후 인허가 접수 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사전 서류 보완 및 검토 과정이 원활해짐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방지하고 인허가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행정의 기본은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민원 불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읍면장실 1층 이전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 운영처럼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명확한 대민 상담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정 신뢰도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광장페스타 시즌1: 썸머' 개최

### 물놀이·먹거리·체험 등 풍성

장수군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장수만남의광장 일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장페스타 시즌1: 썸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광장페스타 시즌1: 맥주'는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6천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와 농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블루베리와 수박, 토마토, 옥수수, 오이, 꿀, 김부각 등 장수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키캡과 젤리가방, 티셔츠, 액세서리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장수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서는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먹거리·농특산물·체험 구매권을 20% 할인 판매하며 행사장에서 신규 가입한 방문객에게는 1만 포인트를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농촌여성 리더 역량강화

### 퍼스널 컬러·온열질환 예방교육

임실군이 농촌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읍·면 생활개선회 하반기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교육은 회원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산물가공센터 등 회의실 및 교육장에서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활개선회원의 실생활 활용도와 농작업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 구성했다.

주요내용은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이미지 표현방법을 알아보는 퍼스널 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 △스카프 연출을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 실습 △여름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이다.

또한 읍·면별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회원간 단체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역량을 높이면서,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예방수칙을 익힐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맞춤형 교육 실시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장수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생활환경과 근로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베트남과 라오스 국적 통역사를 배치해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법질서 △산업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등으로 안전의식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교육을 비롯해 고용주 대상 교육, 숙소 및 근로환경 현장점검,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등록 지원, 폭염 대응 안전관리와 온열질환 예방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작업 중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한 뒤 주변에 알려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고창흥덕농협,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고창흥덕농협 임직원들이 5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탁식에는 백영종 고창흥덕농협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소수은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장, 김성곤 구천동농협조합장 등 1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백영종 조합장은 "구천동농협과의 좋은 인연이 상호 기부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행복에 이바지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에 자리한 고창흥덕농협(조합원 수 2,734명)은 44명의 임직원이 본점과 지점(2),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군과는 2023년 인연을 맺고 지난해까지 총 1천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6일 목요일

## 완주 삼례수소에너지고 취약계층 조명 교체 봉사

완주군 소재 삼례수소에너지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관내 취약계층 9가구를 찾아 노후 형광등과 전등을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며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물했다.

삼례수소에너지고 재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은 가구별 전등 상태를 점검하고, 발광 다이오드(LED) 전등 교체와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학생들은 전공 기술을 활용한 봉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와 소통했다.

송현진 삼례수소고 교장은 "학교에서 익힌 기술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나누며 봉사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복지 사각지대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한 행복배달 프로젝트 '사랑이 꽃피는 우리집' 두 번째 사업을 마무리하고, 5일 대상 가정을 찾아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주택 지붕을 제때 보수하지 못해 빗물 누수와 전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방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은 남원로타리클럽, 남원사랑클럽, 120 민원봉사대의 재능나눔과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가족센터의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추진됐다. 참여기관은 노후 지붕 보수와 도배,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해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참여한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는 "재능나눔은 집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초록우산, 익산 위기 가정에 희망 전해

### 후원금 2,500만원 기탁

익산시는 5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미애)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회장 유기달)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생계비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애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단양종합건설, 고창군에 1천만원 기부

### 고창 ESS공장 시공사 지역 상생 실천

고창군에 디에스동탄의 최첨단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시설을 짓고 있는 ㈜단양종합건설이 5일 고창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단양종합건설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내 디에스시동탄 시공을 맡으면서 고창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에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해 이번 기부에 참여했다.

기탁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단양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디에스시동탄 고창ESS제조공장'은 오는 10월 공장등록 및 사업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선 지역 내 건설·장비·자재 수요 발생은 물론 78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단양종합건설이 5일 고창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사진=고창군>

## 고창군, 폭염 이겨내는 뜨거운 나눔행렬 이어져

### 해리농협·전북은행 물품 나눔

전북 고창군에서 폭염을 이겨내는 뜨거운 나눔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5일 고창군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이 소금사탕 100박스(400만원 상당)를, 전북은행은 여름이불, 팔토시 등이 들어있는 쿨키트 60박스(3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해리농협 김갑선 조합장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뜻을 전달했다.

전북은행 최종구 부행장은 "무더운 여름철,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뜻을 전달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전북은행, 무주군에 시원 꾸러미 60박스 전달

㈜전북은행이 5일 무주군에 '시원(cool) 꾸러미' 60상자(3백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전북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달한 꾸러미에는 여름용 이불과 토시, 손풍기가 담겼으며, 무주군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각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무주를 찾은 최종구 부행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꾸러미가 시원함과 함께 이웃사랑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 대표 은행다운 모습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북은행은 2023년부터는 4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에도 참여해 무주군에 총 7,343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제이에스테크 배관영 전무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정읍시 산외면 출신인 배관영 ㈜제이에스테크 전무가 지난 4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고향을 향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날 배 전무는 정읍시청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산외면 목욕리가 고향인 배 전무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에 동참했다.

배 전무는 "내 고향 정읍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타향에서도 고향 정읍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배관영 전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기부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부안군 환경시설사업소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후원 동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최근 줄포면 환경시설사업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홍보 릴레이를 펼쳤다고 밝혔다.

재단은 사업소를 찾아 반값등록금, 다자녀 장학금, 특기장학금, 비진학장학금 등 주요 장학사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소 직원들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고 장학금 후원 분위기 확산에 함께하기로 했다.

박연길 환경시설사업소장은 "직원들과 함께 정기 후원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환경관리원들에게도 장학사업과 후원 참여 방법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나의 기부가 가족과 이웃에게 힘이 되고 그 나눔이 다시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기부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一事一言〉

## 김제의 893억 투자 유치, 전북 차세대 모빌리티·방산 신호탄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최근 전북 산업 지형의 판도를 바꿀 가슴 뛰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의 한국법인,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가 총 893억 4,000만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제조 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될 이 대규모 자금은 단순히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공장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드론과 방산이라는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셀과 모듈, 팩을 일체형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거점이 우리 전북 김제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지역 경제와 미래 산업 생태계에 참으로 특별하고 가슴 벅찬 의미를 전달한다. 이번 대형 투자 유치를 지역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김제가 향후 구축해 나갈 차세대 배터리 전초기지에 걸어보는 기대 또한 자못 크다.

무엇보다 이번 투자가 갖는 가장 결정적인 의의는 전북의 산업 체질을 기존의 전통 제조업 및 원료 중심 이차전지 체계에서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 및 방산 완제품' 영역으로 대담하게 확장했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소재, 원료, 리사이클링 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김제 투자 유치를 통해 드론과 방산이라는 특수 목적용 고성능 배터리의 전 공정 양산 체계를 지역 내에 완벽히 품게 되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방산 및 산업용 드론 배터리 시장은 국가 안보 및 첨단 기술 도약이라는 명분 아래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블루오션이다. 북미 시장에서 입증된 실리콘 음극재 기반의 고성능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외자기업이 첨단 제조의 최적지로 전북 김제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입지적 가치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쾌거다.

특히 국방 안보와 첨단 산업 측면에서 드론 및 방산 부품의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비추어 볼 때도 이번 투자는 커다란 기대감을 품게 만든다. 현재 국내 드론 산업 및 특수 배터리 분야는 핵심 부품과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안보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배터리 셀 300만 개, 총 1GWh 규모의 대대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김제 생산 공장은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배터리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보루가 될 것이다. '캐나다의 독보적인 R&D 기술 – 전북 김제의 고도화된 첨단 제조 – 북미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밸류체인은 전북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첨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서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지역 사회가 이번 유치에 갖는 기대는 단지 눈앞의 수치적인 경제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약 7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이번 투자 협약식에 도지사와 김제시장뿐만 아니라 육군 35사단장과 국방 MICE 연구원 등 군 관련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은 매우 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제에서 생산될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가 도내 방산 드론 전력화 사업과 직접 연계되고, 나아가 군·산·학·연이 긴밀히 결합된 민군겸용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확대 발전한다면, 이는 전북의 미래 청년들에게도 차원 다른 도전과 기회의 장을 폭넓게 열어줄 것이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일자리가 지역에 뿌리 내리는 것만큼 확실한 지원책은 없다.

물론 893억 원이라는 대규모 외자 투자가 실질적인 결실을 보아 2027년 본격적인 차질 없는 양산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정밀한 행정적 지원과 지자체의 각별한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6년 12월로 예정된 초기 생산 테스트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 입주 부지 확충, 그리고 원활한 전문 기술 인력 수급에 이르기까지 전북도와 김제시가 입체적이고 밀착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안착하고 마음껏 기술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적·재정적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지자체의 당면 과제다.

김제 지평선산단에서 뜨겁게 타오를 차세대 배터리 생산의 열기가 김제라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 전북 특별자치도 전체의 미래 산업 지도를 한 단계 더 높게 진화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성사시킨 김제시의 행정력과 외자 유치 결실에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김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드론·방산 배터리의 핵심 도약대로 거듭나길 온 도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한다.

사 설

## 점검은 끝났다. 이제 실행으로 증명하라

전북도와 14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폭염과 재난 대응, 민생경제, 국가예산 확보,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회의 자체의 의미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도와 시·군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도 분명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도민은 더 이상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을 평가하지 않는다. 수없이 반복된 회의와 점검, 보고와 협의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경험을 이미 너무 많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점검이 아니라 실행이며, 계획이 아니라 성과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금 전북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 새만금 개발, 지역소멸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폭염과 재난 대비까지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회의실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움직이고, 예산을 따내고,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완성할 때 비로소 도민은 변화를 체감한다.

특히 부단체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다. 도정과 시·군정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무 책임자다. 회의에서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실행의 중심에 서야 한다. 계획이 현장에서 멈추지 않도록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의 회의는 '무엇을 논의했는가'보다 '무엇을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몇 시간을 회의했는지가 아니라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얼마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얼마나 많은 도민의 불편을 해소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과 없는 점검은 행정의 관성이 될 뿐이다.

전북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지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국가사업과 투자 유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실행이 늦어질수록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 행정의 속도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

이제 점검은 충분하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회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변화다. 전북도와 시·군은 말보다 행동으로, 계획보다 성과로, 점검보다 실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민선 9기 행정이 도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며,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답이다.

▲오늘의 시

## 그것은 연륜이다 / 박 목 월

어릴적 하찮은 사랑이나
가슴에 백여서 자랐다.

질 곱은 나무에는 자주 빛 연륜이
몇 차례나 몇 차례나 감기었다.

새벽 꿈이나 달 그림자처럼
젊음과 보람이 멀리 간 뒤
나는 자라서 늙었다.

마치 세월도 사랑도
그것은 애달픈 연륜이다.

시인 약력 : 1915년 경남 고성 출생. 대구 계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서울 이화여고에서 교사를 했다. 1933년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1946년 조지훈, 박두진 등과 청록파를 결성하고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 1978년 영면에 들었다.

| 독자투고 |

##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멈춤이 생명을 구한다

도로 위에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만나는 횡단보도는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혼선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미준수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보행자 보호다. 운전자는 우회전 만나는 전방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차를 완전히 세워야 한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춰 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법적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 변화다.

우회전 전 일단 멈춤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다.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운전자의 배려가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박재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물과 빛, 음악과 역사가 흐른다

# 올여름 가족여행은 정읍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에게는 신나는 물놀이를, 부모에게는 한여름 밤의 공연과 휴식을, 온 가족에게는 역사문화 체험을 선물할 여행지가 필요하다. 올여름 정읍에서는 이 모든 즐거움을 만날 수 있다.

정읍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과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를 지난달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도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다.

낮에는 물놀이와 실내 전시를 즐기고, 밤에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만나는 정읍만의 여름 여행길이 완성되는 셈이다. 〈편집자 주〉

## 미로분수·내장산 음악분수·한국가요촌 달하
## 낮과 밤, 실내와 야외 잇는 여름 명소

■ 정읍천이 거대한 물놀이터로…미로분수에서 물빛축제까지

정읍천 미로분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복합형 바닥분수 시설이다. 평소에는 바닥분수와 음악분수로 경관을 연출하고, 여름철에는 도심 속 물놀이터로 변신한다.

올해 물놀이장은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다. 매시간 40분 동안 물놀이를 진행한 뒤 20분간 휴식해 시설을 점검하고 이용객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는 미로분수 음악분수 공연도 잠시 중단한다.

대나무 물총놀이와 활쏘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마련된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그늘막과 탈의실, 냉방 쉼터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돕는다.

7월 마지막 주말에는 미로분수와 정읍천의 매력이 절정에 이른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벽천분수와 미로분수 일원에서 '2026 정읍 물빛축제'가 개최됐다.

구호는 '올여름 정(井)했어! 물빛 춤추는 정읍의 여름밤'으로 지난해 어린이 축구장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행사 구역을 분수 주변 수변 공간으로 옮기고 공연을 대폭 늘려 체험형 야간 축제로 확장했다.

■ 해가 지면 내장산으로…물과 빛이 만드는 음악분수

정읍천에서 물놀이를 즐긴 뒤에는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로 발길을 옮겨보자. 시설 정비를 마친 음악분수는 10월 말까지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평일 오후 8시와 9시, 하루 두 차례 열린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3시와 5시, 8시와 9시 등 하루 네 차례 관람객을 맞는다. 시는 노후한 분사구(노즐)와 배관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연 곡도 추가했다. 음악에 맞춰 변화하는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분수 연출이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매주 월·화요일에는 시설물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거나 낙뢰·강풍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될 때도 중단할 수 있으며, 운영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 뜨거운 한낮에는 '한국가요촌 달하'로…백제가요부터 우리 가요까지

한낮에는 실내 문화여행이 제격이다.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한 역사문화 관광지 '한국가요촌 달하'의 가요전시관이 지난달 18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여름 더위를 식히면서 정읍의 역사와 우리 가요를 살펴볼 수 있다.

가요전시관 개편에는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투입됐다. 전시관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와 이를 궁중 기악곡으로 전승한 수제천을 주제로 꾸민 '정읍사실', 시대별 우리 가요의 흐름과 발전 과정을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로 보여주는 '달하악당(樂堂)'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전시와 체험을 통해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가요의 변천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역사문화 학습장이, 부모에게는 시대별 가요와 함께 추억을 돌아보는 공간이 된다.

시는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정읍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인 전시·체험 방식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국가요촌 달하를 정읍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새롭게 단장한 가요전시관이 백제가요 정읍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가요촌 달하를 중심으로 정읍만의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자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낮부터 밤까지 알찬 하루…올여름 휴가는 정읍에서

한낮에는 한국가요촌 달하에서 백제가요와 우리 가요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후에는 정읍천 미로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해가 지면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된다. 물빛축제 기간에는 정읍천에 머물러 유명 가수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행사까지 즐길 수 있다.

여행 중에는 음식과 특산품, 관광명소를 아우르는 '정읍 3미(味)·6품(品)·9경(景)'도 함께 맛보고 즐겨볼 만하다. 내장산 산채비빔밥이나 정읍 한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시원한 씨 없는 수박으로 한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물놀이와 관광으로 지쳤을 때는 정읍 쌍화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어가고, 청명주·귀리 등 정읍의 특색을 담은 특산품을 여행 기념품으로 챙기면 여행의 즐거움이 한층 풍성해진다.

시는 이들 시설과 축제가 시민에게는 가까운 휴식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내와 야외, 역사와 놀이, 낮과 밤을 고루 갖춘 만큼 짧은 나들이부터 1박 2일 가족여행까지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올여름, 물과 빛, 음악과 이야기가 이어지는 정읍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정읍=김정인 기자